

첨단학과 신·증설 계획...반도체 융합전공 논의는 종료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반도체 융합전공이 개설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대신 우리학교는 교육부에 차세대(지능형) 반도체를 비롯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 신약 ▲차세대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총 5분야의 관련 학과 신·증설 계획안을 제출했다.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우리학교는 교육부에 '2024학년도 첨단학과 신·증설 계획안'을 제출하며 반도체 융합전공 논의를 중단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보고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따른 것이다.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 김동준 팀장은 "반도체 융합전공 신설은 반도체 관련 학과 부재에 따른 것이었다"며 "대학의 학과 신설과 관련해 증원 규제 완화로 법이 개정되면서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도체 융합전공 논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융합전공은 지난 학기 서울캠퍼스(서울캠)에 신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양 캠퍼스(양캠) 이원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캠퍼스(국제캠) 이공계열 학생들의 반발을 산 것이다. 전자정보대학(전정대) 학생회는 '서울캠 반도체 관련 교육과정 신설 문제' TF팀을 구성하는 등 학교 측에 항의 의사를 전했다. 전정대 전자공학과 교수진 역시 반도체 융합전공에 대해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전자공학 교



지난 2월 3일 우리학교는 교육부에 차세대(지능형) 반도체를 포함해 총 5분야의 관련 첨단학과 신·증설 계획안을 제출했다.

수진 공동 성명/대학주보 제1693호 (2022.11.21.))

전정대 학생회 권세나(생체의공학 2021) 집행부장은 "전정대는 전자공학과 및 유관 공학계열 학과들이 위치한 국제캠이 해당 교육과정에서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전정대의 학문 고유성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 이상 이원화 캠퍼스 정책에 혼선이 없도록 책임감 있게 신설안을 재논의할 것을 주장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학교 측은 "반도체 융합전공은 양캠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라며 ▲전정대 ▲응용과학대

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 ▲이과대학과 반도체 융합전공 개편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현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정책에 따라 관련 논의는 무산된 상태다. 최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 대학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일반대학 증원 규제 완화에 따른 대학의 자율적 정원 조정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첨단 분야

학과의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일반대학 증원은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기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확보를 100% 충족 시, 첨단 분야 학과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첨단 분야는 총 21개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통신 ▲IOT(사물인터넷) 가전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첨단신소재 ▲미래 자동차(전기·

자율차, 자율주행차 등) ▲에너지 신사업(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 신약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핀테크 ▲스마트·친환경 선박 ▲지능형 로봇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가 있다.

이중 우리학교는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 신약 ▲차세대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총 5분야의 관련 학과 신·증설을 목표로 한다. 김 팀장은 "우리학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들과 관련해 학과를 신·증설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해당 첨단학과 신·증설은 3·4월 중에 ▲교육부 정원 조정 심사 및 승인 통보 ▲첨단학과 신설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학칙 개정 및 신입생 모집요강 반영 ▲첨단학과 정원 조정 결과를 반영해 교원 충원 및 예산 계획 수립의 과정을 거쳐 최종 신설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학교는 지난 2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또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계획을 위해 8개 대학·대학 연합에 총 540억원을 4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유형은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5개교)과 2~3개 대학이 연합해 참여하는 동반 선정형(3개 연합)으로 구분된다. 선정 대학은 오는 5월 공개된다. 김 팀장은 "지난 2월 28일 사업설명회가 있어 우리학교도 참석했다"며 "사업내용을 검토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2022년 하반기

인천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기간

2023. 2. 15.(수) 09:00 ~ 3. 14.(화) 18:00

지원대상

- ①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
*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졸업 후 2년 이내)
- ② 한국장학재단 산정 소득 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내용

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이자 지원

신청방법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온라인신청

인천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소통참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상환(개인계좌 입금 없음)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 032-120
- 인천광역시 교육협력담당관 ☎ 032-440-2193

* 자세한 내용과 주의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